



## 광주 기독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광주 남구 기독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화에 올랐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Upstream)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Upstream)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 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불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 어낸 거점이다.

광주지역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원기념각·우일선 선교사 사택·선교사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교기지가 형성돼 있다.

한국기독교기지는 문명을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우므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광주 2개소 선정  
사전자문 통과엔 예비평가 절차 면제...등재기간 획기적 단축  
봉건계급 타파·남녀평등교육·인문주의 문화경관 담긴 역사자산

립운동의 중요한 인적·사상적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

기독교기지를 보유한 전국 8개 지자체는 '한국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별서정원과 원림'은 15~16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와 원림으로 구성된 인문주의적 문화경관이다.

별서정원과 원림은 광주 환벽당·취가정, 담양 소재원·식영정 등을 포함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현재 광주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한국

학호남진흥원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 설정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유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명수 기자

## '광주 국가유산 야행'서 옛 전남도청 건축 유산 가치 조명 '전남도청 구본관·회의실' 주제 лек터콘서트·전시·체험 등 운영

광주 동구는 오는 24~25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광주 국가유산 야행'에서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근대 건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 2년 5개월간의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은 오는 5월 중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동구는 이번 야행을 통해 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알려진 옛 전남도청을 역사적 의미를 넘어, 근대기 광주의 변화와 시대정신이 담긴 건축유산으로서 다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30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남도청 구본관과 회의실은 한국인 건축가 김순하가 설계한 광주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이자 시 지정문화유산이다. 특히 회의실 설계도면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당시 건축과정과 설계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렉터콘서트 '건축가의 고민'에서는 역사강사 큰별샘 최태성이 참여해 전남도청 구본관과 회의실의 건축 배경과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여기에 이마시브 연극을 더해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시 '건축가의 방'에서는 설계 도면을 중심으로 건축가 김순하의 삶과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 또한 '건축 미로 탈출',



'100년 후의 건축'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구는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건축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민들이 근대 건축유산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간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을 현대사의 상징을 넘어 근대 건축유산으로 재조명하고자 했다"며 "건축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시민들이 이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 보성군, 2026년 기획 공연 라인업 확정

연극·뮤지컬 등 10편 선정... 5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운영

보성군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이 2026년 기획 공연 라인업을 확정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총 2억 2,400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이뤄졌다.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에는 ▲전통 공연 <송소희x두번째달x오단해: 모던민요>, ▲뮤지컬 <수퍼거북 슈퍼토끼>, ▲연극 <국어의 시간>, ▲전통 공연 <김준수x하윤주x김무반: 풍류일가>, ▲연극 <비온다리아리랑> 등 5개 작품이 선정돼 국비 1억 2,400여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연극 <헬로우 미스 미스터리>, ▲연극 <별빛 쏟아지는 마을>, ▲연극 <미세스마캠>,

▲연극 <고스트>, ▲연극 <수상한 집주인> 등 5개 작품이 포함돼 국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총 10편의 공연은 5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고르게 편성돼 군민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공연부터 광복 81주년, 나윤규의 생애 등을 주제로 한 역사적 소재를 담은 작품까지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프로그램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군은 자체 기획 공연 <심별전>을 오는 11월 선보이며 연간 공연 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연별 티켓 예매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누리집' (<https://www.boseong.go.kr/art/>)을 통해 안내된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다채로운 인문학 교실을 운영한다.

남구에 따르면 2026년 테마 인문학 교실이 오는 9월까지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인문학을 보다 더 친근하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와 소설, 창작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을 다루며,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과 토론 중

광주 남구, 시·소설·창작 분야 '인문학 한자리에'

오는 9월까지 테마 인문학 교실 운영

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2026년 테마 인문학 교실은 시 강연과 한국 현대 시, 소설, 시 창작까지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시 강연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 강의실에 수강생이 가득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현대 시 강연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4차례 진행된다. 우대식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가 강단에 올라 시적 언어 훈련법과 현대 시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소설 분야 인문학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펼쳐진다. 박형숙 소설가가 4차례에 걸쳐 관내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그는 실천문학으로 등단해 중앙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실력과 문인이다.

/임채일 기자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

금이 있습니다

**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